

# 포스트 코로나, 불교 포교의 변환에 대한 소고

정운스님(신명희)\*

- I. 서론
- II. 코로나 사회, 그리고 사찰
- III. 포스트 코로나, 현대 문명과 불교의 만남
- IV. 코로나 시대, 변환을 시도한 불교계 모범 사례
- V. 포스트 코로나, 적합한 불교적 행법(行法) 모색
- VI.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의 전법교화
- VII 결론

## ■ 한글요약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병하였다.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전염증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본다. 근자에 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자,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블루 우울증이 만연되고, 경제 또한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전염증의 무거운 공기를 타개할 불교적 변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현 불교계는 신도수가 줄고 있고, 출가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코로나 전염증이 발병해 사찰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사찰들 중에는 여러 곳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스님들도 현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시대를 타개해나갈 새로운 포교 매체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대체 방법만이 아닌 현대인의 코드에 맞는 불교적인 행법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대승교도들이 행했던 중생을 향한 염원을 갖고 불교 포교의 미래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 ●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불교, 사찰, 바이러스, 포교

## I. 서론

근자는 희망이나 미래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무색할 만큼 정신세계가 황황하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방위적全方位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는 2월부터 코로나가 발병한지 8개월인 시점이다. 조금만 지나면 곧 증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에 갇혀 있다. 포스트 코로나,<sup>1)</sup>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가 관건이다. 논문을 처음 의뢰 받았을 때와 학회에 제출할 때는 사회와 불교계 판도가 달라졌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이러스 증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코로나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는 21세기 들어, 대규모 바이러스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가 연이어 발생했고 또 다른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도 높게 예상되고 있다. 이름만 바뀔 뿐, 변종

---

1) 포스트 코로나(Post(~후에), COVID(코로나19)의 합성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의 새로운 일상 및 경제·문화·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된 새 바이러스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사회에 들어서자,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블루우울증이 만연되어 있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다. 불교계도 여러 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 코로나19 전염증으로 인한 무거운 공기를 타개할 불교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 불교계 현실을 진단하고, 어떻게 포교를 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19 발병 이전 불교계의 현실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 전염증이 발병한 이래 사찰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코로나 시대 불교계에서도 현대 문명 매체를 활용한다.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어떻게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불교적인 행법 가운데 현 시대 코드에 맞는 기도법이나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다섯째, 전염증으로 불안한 시대에 스님들과 불자들이 어떻게 포교 하며,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II. 코로나 사회, 그리고 사찰

### 1. 코로나19 발생, 사회와 삶의 현실

2020년 8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숨진 사람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건 통계수치일 뿐 실제로는 두 배라고 한다. 9월 18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345명에 달했다고 집계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호북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세계보건 기구에 처음으로 보고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68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브라질·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되는 데는 44일,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되는 데는 3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0만 7천 명이 나와 역대 최대였다. 국가별 신규 확진자는 인도가 어제 9만 1천 명으로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남미는 물론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봉쇄조치가 완화된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신규 감염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4만 4천 명을 넘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sup>2)</sup>

20년 8월 초,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수십억 개의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백신이 현재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 가을에나 시행될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백신보다 마스크가 코로나 예방에 적격이라고 한다. 마스크가 전염증 예방이라고 강조하는 점은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나 8개월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발언이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큰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다.<sup>3)</sup> 이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매일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정답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이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계·경제계·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

---

2) 논자는 2020년 9월 17일, SBS 8시 뉴스에서 이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 기사 내용은 모든 TV 방송사 뉴스 및 각 매체 신문이 똑같다.

3) 논자가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9월 27일 기준이다.

게 변화되고 있다. 교육방면에서는 일반 초등학교~대학교까지 학제 체제나 교육방식까지 온라인 시대이고, 기업체도 개인 집에서 집무를 보며, 프리랜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 2.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찰의 현실

### 1) 코로나19 발병 무렵의 불교계 현실

코로나19 발병 무렵, 불교계 현실을 세 가지 양상으로 진단해본다.

첫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전반적으로 종교 신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교는 2019년부터 우리나라 제 2종교로 격하되었다. 게다가 불교계는 신자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불법을 깊어질)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다. 12세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승려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사회 변화를 자각하지 못한 점이다.<sup>4)</sup> 또 중국 당나라 때 번성했던 불교가 송나라 이후 쇠락한 점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수행자가 배출되지 못한 점이다. 곧 법(法)은 살아있지만, 사람의 근기가 쇠락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신체 일부 가운데 쓰지 않는 부위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동물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약한 동물은 도태된다. 이런 원리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불교계는 자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둘째, 불교계는 현대문명의 매체 활용이 미흡하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개신교 대형 교회에서는 방송국과 비슷한 시설을 갖추

---

4) 12세기 무렵,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불교와 힌두교가 결합되어 밀교로 발전되었으나 점차 좌도밀교적인 측면으로 흘러 불교는 순수성을 잃었다. 게다가 불교 승려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문화의 수행 패턴 성향을 벗어났다고 사료된다.

고 있는 곳이 많다. 조계종의 교구 본사도 갖추지 못한 방송 시설이다.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시설로 코로나 이전에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예배를 방영해왔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2000년 9월 26일], 유튜브에서 ‘코로나 이후’라는 종교를 검색하면, 개신교 방송이나 천주교와 관련된 수많은 영상물이 올려져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가 발전된 양상을 느낄 수 있다. 결론은 불교계에서 현대문명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불교계는 타종교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하다.<sup>5)</sup> 코로나 시대로 처음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산문을 폐쇄하였다. 당연히 교구본사 사찰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총무원에 분납해야 할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의 매달 보시금조차 50% 삭감되는 경우까지 이르렀다. 코로나 시대에 개신교계 교회에서는 예배를 감행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불교계는 그렇지 못하다. 화쟁·화합·중도적인 사상에 익숙해 있는 승려들은 국가와 국민들에 역행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그러니 이런 현실은 조계종 총무원이나 일반 사찰에까지 재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중소규모 사찰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각하다.<sup>6)</sup>

## 2)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교계의 다양성

- 
- 5) 논문 뒤에서 다루지만, 불교는 십일조와 같은 신도 멤버십 운영제가 없기 때문이다.
  - 6) 소규모 작은 사찰이나 토굴 규모의 사찰들은 부처님오신날에 연등 접수한 것으로 1년 사찰 예산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비구니스님들 사찰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증이 지속될 경우, 비구와 비구니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비구와 비구니 출가자 성비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종 기도비를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지만,7) 사찰의 코로나 이전과 경제 사정 양상이 예전 같지 않으며, 사찰 수입이 좋지 않다.8) 적막감조차 감도는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코로나 블루가 만연되어 있다. 사찰이 코로나 19에 보였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이다.9)

첫 번째는 ①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만 해도 불교계에서는 포교와 신행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찰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소규모 사찰은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②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점차 온라인 법회를 준비하는 사찰이 있다.

세 번째는 ③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법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사찰 운영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찰이 있다.

먼저 대형 사찰이자, 조계종의 대표 사찰인 두 곳을 보자.

조계종의 중심 사찰인 조계사는 사찰 불교대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규모도 크고, 체계가 있는 곳이다. 대학 과정으로는 주간반·야간

---

7) 서울 종로 조계사[조계종의 포교 1번지]는 지난해까지 방문해 종무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2020년 올해 처음 온라인과 SNS, 전화를 활용한 연등 접수를 실시했다. 또 연등과 꼬리표를 촬영해 신도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도 진행했다. 한편 기도비나 기타 공양금 등도 온라인과 전화 접수를 받고 있다.

8) 스님들이 법회를 중단하고, 신도들에게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즉금(卽金)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할 관건이 무엇인지를 더 큰 그림으로 관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체로 사찰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스님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량이 큰 규모인 사찰은 종무원들 월급에 차질이 생기고, 한 달에 필요한 공과금 납부 및 분담금 납부에 큰 차질이 생긴다. 더 나아가 사찰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한다면, 포교에 사용될 경제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도 확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불자가 감소하면 사찰 경제나 규모에 차질이 생긴다. 곧 사찰 수입의 비효율성은 불교 현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9) 이 논문에서는 ② 두 번째와 ③ 세 번째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될 예정이다.

반·토요일이 있고, 대학원도 주간반·야간반·토요일이 있다. 어느 때는 주간반도 A·B반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코로나 발병 이후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숫자는 50%로 줄면서 축소하거나 대학원인 경우는 합병해서 겨우 운영되고 있다. 조계사는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신도들이 노년층 불자가 많은데, 자녀들이 외출하는 것 자체를 금하니, 법회 참석률이 저조한 편이다.

봉은사는 코로나가 발생한 뒤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앞의 ③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법회 및 사시예불을 매일 송출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활용은 주지 원명스님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다음은 봉은사 주지스님의 인터뷰이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매우 벽차고 힘들었다. 중단 방침에 의해 법회를 중단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왔다. 이에 주지스님은 보시금 100%, 국장급 스님은 50%를 삭감하고, (경제적 지출을 최소한 감소하며) 금전 관리를 다시 정립했다. 몇 달 후 일요일법회를 시작했는데, 이전 코로나 발병 때보다는 저조했지만, 참여하는 불자들이 있었다. 코로나 발병 6개월이 지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회복되었다. 백중[음력 7월 15일]에 동참 대중이 많았다. 부처님오신날에 참여하지 못한 불자들이 백중에 몰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반면 천도재 및 제사를 지내는 분이 많았다. 하지만 봉은사도 조계사와 마찬가지로 사찰 불교대학의 학생 참여가 저조하다.”<sup>10)</sup>

주지스님의 또 다른 말씀이다.

“코로나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때 사찰의 모든 방법, 생활 방식을 정립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포교뿐만 아니라 사찰

---

10) 주지 원명스님의 인터뷰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대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불교계 승려는 과거 불교사찰과 옛 스님들이 일궈놓은 것으로 살았다. 그렇지만 현 승려들이 지금부터라도 불사를 반듯하게 해서 후손 승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앞으로는 신도들의 보시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승려가 시주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려도 시주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후손을 위해 사찰 경제 운영 방식을 바꾸어 경제 부분의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는 하나의 경고이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시주자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신도들이 우리가 사는 것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사찰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을 갖고 포교로 회향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본이 튼튼해야 할 수 있다. 곧 사찰 경제가 튼튼해야 포교도 발전된다.”<sup>11)</sup>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부처님 제자로서 계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사찰 경제를 늘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하셨다.

서울 화곡동 S사는 앞의 ①번에 해당한다. 한 달에 음력으로 세 번 법회[3일·15일·24일]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했는데, 발병 이후에는 1/10로 줄었다. 그나마 시간이 흘러 수여달이 지난 뒤에도 1/2 정도의 신도들이 참여 하고 있다. 연등 공양은 작년에 비해 80% 정도이다. 6개월이 지난 근자에도 법회에 참여하는 숫자는 늘지 않고 있다. 이 사찰의 문체점은 현대식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코로나가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 칠곡 J사는 화곡동 S사보다는 주지스님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문명의 매체를 활용하려는 자세가 미흡한 것은 ①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산 중흥사는 앞의 ③번에 해당한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찰

---

11) 이 인터뷰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한 것이다.

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혀 없었다. 신도가 아닌 관광객들조차 출입이 없었다. 그래도 총무스님은 코로나 발병 이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법회 동영상을 live로 하고 있다. 논자 입장에서 볼 때, 신도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이나 총무스님과 법당 기도스님의 지극함에 신도들이 감득하고 온라인으로나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sup>12)</sup>

사찰규모		전년도 대비 : 2020년 연등공양	코로나 발병 2개월	코로나 발병 6개월	앞으로 전망 [이 질문에 스님들은 불교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답변함]
대규모 사찰	(서울 종로) 조계사	80%	중단 방침으로 법회를 중단/소수의 기도하는 불자는 법당에 개인적으로 기도	예전에 비해 법회 참석률이 적음[노년층 불자들이 많은 원인]	
	(서울 강남) 봉은사	97%	중단 방침으로 법회를 중단하면서 사원 경제가 매우 힘들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회복된 상태이다. 백중 행사에는 신도가 이전보다 더 늘었다. 제사나 천도제가 예전보다 많아져 사찰 경제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는 좋은 기회이다. 사찰 생활 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불자들의 시주물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승려도 시주하면서 불자들에게 동참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사찰을 불사하고 정비해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찰	(서울 화곡동) S사	80%	법회를 중단, 간혹 참배하는 이 들만 있음	초하룻날이나 일반 법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70% 참석	
	고양시 흥국사	97%	중단의 지시를 따라다보니, 법	초하룻날, 법회 참석이 150명	주지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어떻게 쉽게 불교 진리

12) 봉은사 . 흥국사 . J사 . S사 등 인터뷰는 8월 20일을 기점으로 직접 인터뷰하였다.

			회가 진행되지 않았고, 신도들도 법당 출입이 없었음	이었는데, 90여 명이 참석함	를 전할 것인지에 고민이 컸으며, 불교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소규모 암자	고양시 북한산 중흥사 13)	동일한 수준	사람들이 사찰에 오지 않음.	이전 상태로 회복	스님들이 포교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고 노력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불교가 발전된다.
	(경북 칠곡) J사	연등 공양은 90% 초과일 참여대중 50%	신도들이 전혀 오지 않음[신도들이 연로한 계층임을 고려해 볼 것]	제사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앞으로 스님들이 각성해야 한다. 포교사를 키워서 사찰이 운영토록 해야 한다. 법회도 일요일로 해서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사찰음식 등을 보급해야 한다.

### Ⅲ. 포스트 코로나, 현대 문명과 불교의 만남

현대인은 기계 문명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선 사찰이나 일부 스님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 1. 유튜브 활용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이다.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

---

13) 중흥사의 총무스님 인터뷰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의 포교당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산중 사찰이나 템플스테이 사찰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회 및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각각 방사를 쓸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 스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튜브(YouTube)이다. 이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2005년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조드 카림(Jawed Karim)이 캘리포니아 산 브루노(San Bruno)에 유튜브사를 설립하였다. 세 명의 창립 멤버는 친구들에게 파티 비디오를 배포하기 위해 “쉽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착안한 데서 유튜브의 시초라고 한다. 2006년 구글이 유튜브사를 인수하고, 2008년부터 한국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동영상이나 사용자에게 댓글을 달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일종으로도 분류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들은 개인, 방송국,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들 또한 유튜브와 제휴하여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2006년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업로드 가능한 동영상 파일의 갯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 등에 쉽게 복사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API가 공개되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4)</sup>

검색하는 매체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면서 검색이나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유튜브 시대가 되었다. 중고생 학생들도 수업용이나 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유튜브이다.

유튜브[장점]는 간단한 장비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홀로 할 수 있는 미디어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 교육 등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편 이익까지도 창출되

---

14) www.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정리 요약

는 구조를 갖고 있어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YouTuber)들이 많이 있고, 단체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전문 회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유튜브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우리나라 BTS는 2010년도에 데뷔했는데, 소속사가 규모가 작은 제작사이고, 그들 인지도가 낮아 방송 출연이 쉽지 않았다. 이에 2013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활동한지 4년 만에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이 생기더니 2017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AMA) 소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다. 6년간 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명가수 저스틴 비버를 물리친 것이다. 이것은 방송국 권력이나 자본이 아닌 오직 ‘유튜브’를 통한 순수한 팬덤의 효과였다. 바로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방송국 미디어 산업, 기획사 등 과거의 영광과 권력이 사라진 유튜브의 위력이라는 점이다.<sup>15)</sup>

물론 유튜브의 단점이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구독자 1,000명에 구독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를 통해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유익하지 않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불교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논자도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불교관련 내용에서 불편하거나 몰이해된 교리가 적지 않음을 발견한다.

---

15) <https://youtu.be/Fmsgn6Vbd-s> / [GMC강연클립] 포스트코로나, 당신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 최재봉 교수' / 3:38

## 2. 유튜브와 불교의 만남

근자 코로나19로 인해 불교계에서는 유튜브나 기계 문명을 활용한 포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른 종교에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이런 방법을 활용해 포교했다는 점이다. 불교계가 포교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점이 드러났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불교계 스님들도 새로 도약할 기회라고 본다. 스님들도 동영상 편집하고, 자막 꾸미기, 업로드하는 법 등 유튜브 활용법을 익혀야 한다. 다음은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이렇게 제안해본다.

- ㉠ 경전 강좌: 불교는 초기불교 경전을 비롯해 대승불교 경전 등 무궁무진한 자료가 잠재되어 있다. 한 경전을 정해서 하든, 주제별로 뽑아서 하든, 경전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 ㉡ 참선 프로그램: 북방불교의 조사선·간화선·염불선 선자들의 수행법을 소개하고, 역대선지식의 수행법을 소개함은 물론이요, 재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을 보급한다.
- ㉢ 명상 프로그램: 서양의 심리학과 결부된 명상, 초기불교 수행법인 사마타와 위빠사나, 티벳불교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이런 명상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및 비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 다양한 기도법: 우리나라 불교 기도법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간경·주력·절수행·사경·참회 등 다양한 기도 방법을 설명하면서 직접 실참하는 방법을 도입시킨다. 더 나아가 기도로 인해 삶의 희망을 얻었거나 부처님 가피를 입은 사람들을 소개한다.
- ㉤ 사찰 음식: 건강과 결부지은 사찰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

찰음식에 관심 있는 비불자들도 많은데,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본다.

- ㉞ 불교식 몸 풀기: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불교식 몸 풀기를 시도해 본다. 일반인들이 108배는 건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㉟ 불교사 역대 큰스님들 행적 소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비롯해 옛 스님들의 행적을 스토리텔링처럼 소개하거나 웹툰(webtoon) 기법을 활용해서 유익하게 만들어낸다.
- ㊱ 찬불가 보급: 찬불가 음원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다. 악보에 노래, 피아노 반주까지 결합한 찬불가를 유튜브에 올리면, 찬불가를 대중화할 수 있다고 본다.
- ㊲ 다도 프로그램 개발: 다도에 관해서는 재가자들의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있다. 하지만 스님이나 신심 깊은 불자가 ‘선문화(禪文化)’와 결부시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의 차문화도 함께 보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 ㊳ 경전 읽기: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계정이 많이 있다. 경전 독송이 아니라 경전을 그대로 읽어주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혹은 『금강경』이나 『유마경』인 경우, 대화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㊴ 불서 소개: 불교적인 색채가 갖든 일반 서적이거나 스님들 에세이, 혹은 불교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이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불교계 출판사 측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가능한 방송이라고 본다.
- ㊵ 사찰 문화 해설: 사찰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찰 법당 벽화나 내부 그림, 각 당우에 대한 설명 등을 불교 진리에 입각해서 진행한다.

- ㉓ 해외불교 소개 : 다른 나라의 불교 활동도 소개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찰을 소개하거나 활동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 여러 방면의 불교 소재가 있을 거라고 본다. 논자도 유튜브를 찍고 있다. 다나TV<sup>16)</sup> ‘정운스님의 이야기로 듣는 경전’으로 20회 과정으로 기획하였다. 그런데 7월 말에 녹화했던 유튜브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바다·산·대나무 숲 등 사진을 뒤 배경으로 넣었다. 분위기도 살리고, 여름 특성상 나무와 바다가 있으니 법문 듣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면서 산뜻함을 준다. 또 논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유튜브 방송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폰과 노트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불교 관련된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포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인다면 불교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시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불교 역할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불교가 부합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신행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들이 4차 산업에 맞는 것들을 익히고, 유튜버들끼리 서로 모여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구독해주며, 서로를 격려해줌으로서 발전시킨다. 한편 신도들에게 유튜브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온라인으로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킨다. 또한 불교계 사이트나 방송 계정을 소개·보급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 유튜브를 통해 법회를 생중계 하거나 화상 채팅을 이용해 법

---

16) 불자들이 운영하는 20년된 회사로서, 현대 문명 매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재가 불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스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곧 재가자의 기술과 스님들의 불교 진리 내용을 결합하는 것도 포교의 한 장점이라고 본다.

회나 회의를 주관한다. 이 화상 채팅을 통해 신도들에게 신행 상담을 해주거나 스님과 신도, 신도와 신도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V. 코로나 시대, 변환을 시도한 불교계 모범 사례

##### 1.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

국제선원은 일요일 오전에 법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지 자우스님은 경전을 함께 독송하고 법문을 하면서 실시간 댓글로 신도들과 소통하고 있다. 법회 도중에도 관음보살의 모습처럼 신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신행생활을 이끌고 있다. 이 사찰에서는 코로나 19가 시작되는 2월부터 온라인 법회를 시작했다. 8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선생이 학생들 출석부 체크를 하듯 신도들의 출석체크를 하는 등 온라인 법회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자우스님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어설피고 힘들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을 들려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또 유튜브 법회를 통해서 특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절에 오기도 힘든데, 집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법당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신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지 자우스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일요행복법회는 삼귀의~법문~사홍서원까지 대면 법회 식순대로 방송해 법당을 그대로 랜선

에 옮겨놓은 것과 같았다. 주지스님은 법문을 하면서 참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으로만 보는 법회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법회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게다가 서울권에 있는 신도만이 아니라 외국이나 지방에 사는 도반들이 함께 법회에 참석하고, 병원에 있는 신도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스트리밍 법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

법회가 끝나면 신도 몇 분이 그 날 법문에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주지스님이 직접 전화로 상담해주었다. 한편 자우스님은 매일 명상의 글을 공개된 밴드에 올려서 혼자 하기 힘든 명상을 신도들이 도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주지스님은 또 다음 달부터 『화엄경』 사경과 독경 강좌를 마련해 ‘신도들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는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2. 직할교구 강남 봉은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봉은사는 사찰 재정에 대해 새로운 방법도 도입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기도와 법회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고정적으로 기도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곧 ‘연간 기도회원제’를 도입한 것이다. 3천불 회원제 특별 기도를 6월에 시작했다.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1년 정기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 코로나로 사찰에 오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서이고, 봉은사측에서도 안정감 있는 사찰 경영이라고 한다. 봉은사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매월 CMS 자동이체를 통해 1년 기도비를 내면, 봉축기도·출가 열반기도·안거기도·입춘·칠석·신중기도·생전예수재 등 13가지의 기도를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다. 한편 3천불 회원에 가입한 불자는 불교용품점인 서

래원과 연회다원 용품의 10% 할인, 점심공양권 24장, 종일 주차 6장 등이 함께 제공된다. 또 회원들을 위해 주지스님이 특별 법회도 실시한다. 이 회원들 중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량 내에 법왕루 당우 앞에 대형 스크린과 홈페이지에 동참자 명단을 띄우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여타 신도들의 기도 동참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회원과 개별 법회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이다.<sup>17)</sup>

이런 회원제 도입 방법은 사찰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도들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지 않고 사찰을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찰과 연계되어 있고, 혹 사찰에 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사찰에서 기도해준다는 점에 안정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회원제도에서는 신도들이 신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도량은 조계종 지정사찰이므로 주지가 바뀌더라도 이런 시행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신교계에서는 십일조가 있어 재정수입 확보로 신도 포교하는데, 부담이 없다. 불교에서는 근자에 도입되고 있는데, 점차 모든 사찰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본다.

### 3. 고양시 흥국사

흥국사는 주지 원용스님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사이버법당이  
다.

---

17) 논문을 마무리 하는 시점, 창원 구룡사[초하루·보름·지장·관음·산신재일 등 5재일을 묶어서 축원]와 부산 광명사[인등기도·정초기도] 등 여러 사찰이 회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가상현실(假想現實)이란 인공현실·사이버공간·가상세계라고도 한다. 즉 현실세계의 정보 및 상황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불교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찰의 모든 형태와 행위를 모두 가상(허구의 세계)으로 꾸며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 꾸미는 것이다. 즉 부처님 상호를 원하는 부처님으로 구현하고, 사찰을 극락세계처럼 CG(컴퓨터 그래픽)를 활용해 환경을 조성하며, 극락세계의 변상도를 가상으로 구현하여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꾸미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세계의 체험을 법당 전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스크린을 활용하든지 혹은 개인만의 영상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은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증강현실(增強現實)은 현 가상현실과는 달리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흥국사 사찰의 영상을 갖고 다른 모습과 환경을 첨가하는 것이다. 즉 흥국사 전경 사진에 극락세계의 누각과 연못 혹은 경전에 나오는 종류의 불보살님 혹은 대중을 만드는 것 등 이를 다시 영상으로나 사진 및 스크린으로 구현한다. 이 구현된 모습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홀로그램이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결합하여 가상의 인물이나 현재 인물을 3D로 구현하여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거나 증강현실 속에 구현하여 살아 있는 것과 같이 만드는 것이다. 흥국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홀로그램 첫 번째는 배경은 흥국사 내부 법당 그대로이면서 약사여래를 다른 장소 당우에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신도들로 하여금 법회를 진행할 때, 똑같은 부처님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송담큰스님 법문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큰법당에 구현하여 생생한 현실 모습으로 음원과 매칭하여 신도분들에게 법문을 듣고 보

게 한다.

결과적으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및 홀로그램이 앞으로 AI(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경전에 있는 내용과 열반한 큰스님을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불교는 많은 변화의 흐름을 따르게 될 것이다. 또 비대면 법회라 할지라도 인터넷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많은 정보 및 질 좋은 영상스토리, 기초부터 전문성까지 폭넓게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사 주지스님에게 왜 이런 것을 계획했느냐고 물었더니, 주지스님은 이렇게 답변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불교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이런 것을 통해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콘텐츠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신심이 증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을 통해 명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자는 흥국사 주지 원용스님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불교 지식을 잘 이해한 뒤에 얼마만큼 구현시킬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다.

둘째 4차 산업 혁명 인지도가 보편적이지 못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비용이 매우 높다. 이에 열악한 환경인 암자에서는 설치하기 어렵고, 종단 차원에서도 보급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셋째, 가상현실을 법회에 활용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닌데다 주지스님의 열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한편 차기 주지가 전 주지의 방

법을 그대로 실행하느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4.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관음사 우학스님께서서는 코로나 시대 이전인 5년 전부터 온라인 포교를 시작했다. 즉 2016년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온라인 시대임을 자각하고, 변화를 준비해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관음사에서는 포교와 신행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온라인 불교대학을 열었다. 우학스님은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카페가 유행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유튜브 포교로 옮겨갈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 한다.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 19로 인해 대관음사의 진가가 드러난 것이다. 관음사에서는 개설 이후 4년동안 온라인 불교대학에 4만 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sup>18)</sup>

#### 5. 강원도 오대산 중대 사자암

오대산 중대 사자암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유튜브 ‘중대 적멸보궁 TV’를 개설해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 불자들은 적멸보궁 TV 개설에 ‘멀리서도 항상 보궁 법당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지스님에게 전한다. 신도들은 유튜브만 켜면 오전 3시 반부터 오후 11시까지 언제든지 볼 수 있어

---

18)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2298> / 02:10 지점 / 2020년 8월 15일자 뉴스 / 우학스님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불교이론, 생활법문, 인생강좌 등 온라인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집안이나 그리고 내 손 안에 법당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다보니, 부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다양한 연령층에 일괄적으로 전자 매체를 쓰게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시대에 맞춰 가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자들도 익숙해하고 있다.<sup>19)</sup> 또한 본사인 월정사에서 여름 휴가에 템플스테이를 프로그램 그대로 TV를 개설해 운영하였다.

## 6. 수여 사찰의 온라인 법회

스님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것은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법회이다. 조계사·봉은사·해인사·월정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들은 법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신도들이 가정에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전국 100여 곳의 군법당에서도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장병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법회를 열고 있다. 북한산 내에 있는 중흥사도 4월부터 매주 일요일 10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법회를 생중계 하고 있다.

## 7. BTN 불교TV에서 법회 및 행사 생중계하기

7월 16일 불교 5대 명절인 백중을 맞아 BTN불교 TV에서는 최초로 백중특별기도 생방송으로 입재기도를 송출했다. 코로나19로 수행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불자들은 안방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초재부터 6재까지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시청자를 위해 방송했으며, 9월 2일 회향하였다. 마지막 백중특별기도를 생방송으로 편성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생방송 내용에는 용인 보현정사

---

19)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1936> / 01:18 지점 / 2020년 7월 22일자 뉴스

주지 석중스님의 한글지장경 독경으로 시작하고,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 법문, 축원 등 50분간 진행되며, 석중스님의 실시간 축원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의 ‘업의 윤회’를 주제로 법문을 방영하였다.

## 8. 유튜브 비구니 스님의 활약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비구니 무여스님이 있다. 이 스님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유튜브로 활동하였다. 무여스님은 승려가 앉아서 신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다가가는 원력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무여스님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튜브 내용을 구성한다. 기획부터 편집, 자막까지 혼자 거의 모든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 무여스님은 4계절 자연이 담긴 전국 사찰을 소개하고, 그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스님의 수행과 포교, 삶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무여스님은 불교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금 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서 불교 포교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sup>20)</sup>

위기의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으로, 시대 변화를 일찍이 파악한 모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

20) <http://www.btnnews.tv/news>, 2020년 7월 16일. Btn 뉴스

## 9. 젊은 불자들의 활약

젊은 불자들도 코로나 시대에 또래의 청년들을 위해 자구책을 내놓았다. 조계사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대표적이다. 이 두 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했다. 대불련은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불교 ASMR’, ‘불교동화’ 등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온라인 포교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부제가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인 만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사찰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sup>21)</sup> 이는 주요 사찰을 탐방하고, 각 사찰에 담긴 설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청년회는 매주 스님들과 함께하는 법회를 올려 언제 어디서나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up>22)</sup>

이렇게 대학생과 청년회 활동은 젊은 감각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쉬우며, 친근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 V. 포스트 코로나, 적합한 불교적 행법(行法) 모색

— 기도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시킬 것인가?!

### 1. 시대 코드에 맞도록 현대적인 다르마를 개발하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파~초기대승~중기대승~후기대승을 거치면서 그 시대에 부합된 불교학이 등장했고,

21) <http://www.btnnews.tv/news>, 2020년 7월 11일. Btn 뉴스

22) 불교신문 3601호, 2020년 7월 23일자

수많은 논자들의 논에 의해 불교는 풍성한 학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불교를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이 시대 증생에 적합한 진리를 개발해야 한다. 논자 입장에서 법문에 대해 세 가지로 예시를 들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 전염증을 연기설에 적용해본다. 한 사람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은 물론이요, 동네 사람들, 회사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역에 코로나를 확진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의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세계 지성인이요, 문화학자인 기소르망(Guy Sorman, 프랑스)에게 정부차원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 유튜브에 있다.<sup>23)</sup> 제목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 변화’인데, 질문자가 ‘우리가 맞서게 될 거대한 변화가 무엇이나?’고 질문하자, 기소르망은 이렇게 답변했다.

“이번 코로나로 해서 우리의 운명이 상호 의존적이며, 우리의 이웃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류전체가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화엄철학으로 말하면,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사상이다. 하나가 곧 다수요, 다수가 곧 하나인 것이다. 결코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은 주위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의 유기적인 존재이다. 곧 우리는 연기적(緣起的)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존재이다.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시간적인 선후의 인과 관계나 논리적인 상호의존의 인과 관계가 모두 연기사상이다.

---

23) [https://youtu.be/9Laa\\_LsZSxc](https://youtu.be/9Laa_LsZSxc) /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 1:21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생명존중을 연결시켜 보는 법문이다. 코로나 전염증은 솔직히 따지면 인류의 자만과 자고병(自高病)으로 발병된 인재이다. 몇 년 단위로 발병하는 바이러스는 조류·어류·축생들을 인간의 피조물로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해친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전염증이 또 발병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살생(不殺生)과 연결시킨다.

셋째, 삶의 고난과 무상(無常)을 연결시킨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 고난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열반경』의 ‘흑암녀 공덕천’을 소개한다.<sup>24)</sup>

---

24) 『涅槃經』 「성행품」에 나오는 내용이다[T12, 000]. 공덕천(功德天)은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흑암녀(黑暗女)는 불우한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공덕천과 흑암녀는 자매인데, 늘 함께 붙어 다닌다. 곧 불행한 일과 좋은 일은 늘 수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말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을 태연하게 가져 세상사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은 어록에도 여러 곳에 전한다.

## 2. 염불의 현대화

조계종의 종지(宗旨)는 선종을 표방하지만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 경이든, 주력이든 그 어떤 수행법이든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한 방편[진리]이다. 『금강경』에서는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였고,<sup>25)</sup> 또한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 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하였다.<sup>26)</sup> 곧 진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 선(禪)만이 최상이라는 사고를 내려놓고, 현대인에게 맞는 기도·수행·명상법을 개발해야 한다. 『무량수경』에 “임명중시에 아미타불 명호를 십념+십만 하면 왕생극락한다.”고 하였고,<sup>27)</sup> 『관무량수경』에는 “아무리 사악한 악인이라도 나무불이라고 열 번만 소리 내어 부르면 [十聲]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였다.<sup>28)</sup> 코로나 전염증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감이 지속되는 시점에 타력(他力) 사상은 모든 중생이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이행문적(易行門的) 요소이다. 주력·독송·사경 등도 현대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염불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권장할만한 기도법이라고 본다. 일본의 아리타 히데오<sup>29)</sup>가 의학적으로 독경이나 염불, 다라니 독송을 했을 경우에 나타난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험을 해본 결과, 독경의 뇌파를 측정하면 알파파가 나올 때에 주기적

25) 『金剛經』(T8, 751c), “是法平等 無有高下”

26) 『金剛經』(T8, 749b),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27) 『無量壽經』(T12, 268a), “說我得佛 十方眾生至心信樂 欲生我國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28) 『觀無量壽經』(T12, 346a)

29) 아리타 히데오(有田秀穂, 1948~ )는 토호(東邦) 대학 의학부 교수.

인 차이가 있었다. ... 경전 독송의 경우, 내용이 있는 것을 읊을 때는 좌뇌가 작동하는 반면 운을 밟을 때는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 즉 내용이 나오면 알파파가 감소된다. ... 경전 독송시에 운에는 리듬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전의 의미를 꼭 알고 독송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모르는 다라니를 독송하거나 정근을 할 때에 오히려 알파파가 나오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경전을 암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파파가 나오지만, 경전을 보면서 읽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이때는 좌뇌가 작동함). 특히 다라니인 경우, 인도에서 경전이 성립될 때에 음운을 배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 발음 그대로 하는 것이 기도에 매우 효과적이다.<sup>30)</sup>

일반적으로 보통 책을 낭독해도 알파파가 나온다.<sup>31)</sup> 그런데 경전을 독송했을 경우에도 좌뇌의 효과가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운율이 있거나 정근을 할 경우에는 알파파가 더 많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곧 소리를 내서 독서를 할 때 힐링 상태와 같은 알파파가 증가하는데, 낭독하는 경우나 소리를 내서 염불하는 것은 마음의 힐링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sup>32)</sup>

### 3. 간경 . 독경과 불서의 만남

불교는 진리[교리 체계]의 종교이다. 대승경전에서도 재보시보다

---

30) 아리타 히데오 . 겐유소큐, 이성동 역(2012), 『禪과 腦』, (서울: 운주사), 127-130

31) 김보경(2014), 『낭독은 입문학이다』, (서울: 현자의 마을) 저술 속에서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책에서 언급하기 이전에도 '낭독 독서의 심리적 치유 효과, 마음 안정 효과, 적절한 판단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실험적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김보경씨의 낭독과 입문학에 대해 2013년 9월 SBS에서 다큐스페셜 <함께 읽는 독서의 맛>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32) 定芸(2016), 「힐링을 위한 염불행법의 현대적 의미」, (부산: 동아시아 불교문화 25집), 450-453.

는 법보시를 중시하며 진리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년전부터[훨씬 그 이전부터] 불교계 출판시장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불자들이 책을 보지 않으니 불서들이 팔리지 않고, 출판사에서는 좋은 책을 출판하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해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 곧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서 읽기는 불법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홀로 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에 적합하다고 본다. 불서를 통해 스님과 불자, 불자들 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다.

첫째,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둘째, 책을 선정할 때, 대중들의 정서와 수준, 근기가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책 선정이 쉽지 않은데, 매달 다양한 책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 경전·경전 해설서·불교 에세이·고승전·불교 미술 등 다양한 방향에서 선정하는데, 굳이 어려운 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논자는 예전에 수년간 불서읽기모임을 주관한 경험이 있는데, 불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면 진행방법상의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 【A 유형】

책 선정은 일정하지 않고, 논자가 매달 다양하게 선정한다.

① 한 달에 책 한권을 정해서 각자 집에서 읽어온다. ②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사찰에서 모인다. ③ 먼저 가볍게 한달간의 실행활동을 돌아가면서 말한다. ④ 한 사람이 발표문을 준비해와서 발표를 한다. ⑤ 그런 뒤에 회원 전체가 책에서 토론할 내용을 4~5가지로 선정해 놓고, 휴식 시간을 갖는다. ⑥ 휴식하고 토론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며 토론으로 진행한다. 회원 가운데 발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형태로 모임을 하였다. 이 A 유형은 논자가 진행했던 방

법이다. 혹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화상채팅을 활용한다.

【B 유형】

책을 선정해서 다 함께 모이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발표자 한 사람이 카톡이나 밴드에 발표문을 올려놓는다. 날짜와 시간을 정한 뒤 화상채팅[Zoom을 활용]을 통해 모임을 갖는다. 그런 뒤에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댓글을 달면서 동질감을 형성하며, 도반 의식을 키운다.

【C 유형】

책 한권을 3~4번 정도 나누어 진행한다. 모이는 기간은 회원들 간에 약속해서 정한다.

㉠ 책을 선정한다.

㉡ 미리 정해진 부분을 일 주일 혹은 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당연히 거리두기를 염두에 뒤야 함] 서로 읽어가면서 한 쪽지나 한 part가 끝나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 회원 각각이 모임에 오기 전에 감동받은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면 준비해 와서 발표한 이 때,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면 화상채팅으로 진행한다.

【D 유형】

㉣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 빙 둘러앉는다. 한 page 혹은 한 part의 양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런 뒤에 리더 혹은 스님이 설명해 준다.

㉤ 내용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호응해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남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고 지탄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불서읽기에 대한 몇 가지 장점 및 보완점이 있다. 첫째,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 독서회가 아니므로 책을 선택할 때는 불심을 돋우게 하는 주제의 책을 선정한다. 이런 불서읽기를 통해 불교의 수행단계인 신해행증을 실천할 수 있다. 셋째, 이 모임은 법당이나 강당에서 할 필요는 없다. 도량 내 잔디밭이나 야외, 혹은 카페에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본다.

#### 4. 기존의 법회 형식에서 탈피하라

첫째, 단순히 법석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법을 전달하는 방식은 변해야 한다. 물론 법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특정한 법회를 제외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고, 찬불가도 부르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등 콘서트 방식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역사 순례이다. 단순히 ‘하루에 세 곳 이상 사찰을 순례하면 기도 성취가 잘 된다.’는 기복적인 믿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주제가 정확해야 한다. 순례의 예를 들어본다. ㉔ 우리나라 역대 승려들의 행적을 찾아 스토리텔링처럼 순례를 하는 것이다. 혹 순례하는 중간 중간에 ‘모범되는 승려들의 삶과 수행을 통해 불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등 삶과 진리가 결부된 방법으로 설법을 하고, 토론해

본다. 또한 ㉔ 나말여초 선사들의 사상을 찾아서... ㉕ 조계종의 뿌리를 찾아서... ㉖ ‘다도와 불교사상’이라고 해서 쌍계사[우리나라 최초의 차 재배지]나 일지암[대흥사 초의선사가 주석한 곳] 등을 순례 ㉗ ‘원효성사의 행적을 찾아서’... ㉘ 관음도량을 찾아서... 관음도량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현 시대의 관음보살 구현을 주제로 법을 설해준다. ㉙ ‘결사 정신을 되새기며’... 신행 결사를 되새겨보는 일도 중요하다.33) 코로나19 전염증이 종식되면 해외순례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

셋째, 불교와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다.34)

## VI.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의 전법교화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 불교는 제2의 종교로 하락했다. 게다가 불자가 줄고, 출가 승려가 부족한 역경에 코로나19로 인해 불교계는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논자는 이 논문을 위해 몇 사찰 주지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때쯤이면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런 코로나를 기회로 스님들도 반성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불교도 활성화될 수 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승려가 안주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거듭하셨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경전에서 찾아보고,

33) 보조 지눌(1158~1210)에 의해 정혜결사가 있던 순천 송광사, 원묘국사 요세(了世, 1163~1245)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행했던 백련사 등지이다.

34) 인문학+불교의 만남은 아직 보급되지는 않으나 시도하는 단체가 있다. ‘V-3. 간경·독경과 불서의 만남’과 결부지어 볼 수 있는데, 북한산 중흥사 템플스테이에서는 2019년도부터 ‘책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작가나 시인과의 만남인데, 고무적이라고 본다.

이 시대에 맞는 승려상을 구현해보자.

## 1.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루나의 전법

예전에는 직접 사찰에 찾아오는 불자들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다. 오롯이 자신만의 수행을 위해 신도들에게 푸 대접하는 것이 승려의 멋진(?)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승려가 중생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 이에 전법에 석가모니부처님과 부루나 존자의 자세를 표본으로 삼아보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범천이 찾아와 부처님께 중생제도를 권청한다.<sup>35)</sup>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권익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傳道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하늘과 인간 세계에서 모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해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유행(遊行)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제자들이여! 모두 함께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한다. 전도하러 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른 길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해야 한다.”<sup>36)</sup>

부처님은 비구들이 함께 가지 말고, 각각이 유행해 중생 제도할 것을 부탁하셨다. 다음은 설법說法 제일 부루나(Pūṇṇa) 존자의 포교에 대한 신념을 보자.

35) 『增一阿含經』 #19-1 「勸請品」 (T2, 593a-b) ; 南典 『相應部經典』 # 6.1 ‘勸請’

36) 잡아함 39권, 1096 『繩索經』

부루나존자가 부처님께 들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회향할까를 맹세한 뒤에 부처님을 만난다.

어느 날 그는 인도의 서부지역 수나아로 가서 전법할 것을 맹세하고, 부처님께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염려하는 눈빛으로 부루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알기로는, 그 나라 사람들은 사납고 흉악해서 남을 욕하고 꾸짖는 일을 예사로 한다.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나?”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이 설령 저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착한 심성이 있어 손으로 때리거나 돌로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루나야, 만약 그들이 손으로 때리고 네게 돌을 던진다면 어찌할 것이나?”

“스승님, 만약 손으로 때리거나 돌로 나를 칠지언정 그들에게도 착한 심성이 있어 칼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칼로 너를 해치면 어찌려고 하느냐?”

“부처님, 비록 칼로 저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어 저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혹시 너를 죽인다면 어찌겠느냐?”

“부처님,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제 생명을 해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道)를 열심히 닦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자꾸 병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행자도 있는데, 그 서부 사람들 덕분에 내 썩어빠진 육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나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sup>37)</sup>

신명을 받쳐서라도 법을 전하겠다는 부루나 존자의 모습이다. 근자 불교계 현실에 이런 정신으로 포교를 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본다.

37) 잡아함 13권, 311 『부루나경』

## 2. 대승의 보살정신 구현

B.C 1세기, 대승불교가 일어났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파불교 승가에 대한 반발이었다. 곧 부파불교 승가의 중생에 대한 염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대승의 보살은 출·재가를 떠나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자이다. 곧 자신의 깨달음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 대한 자비를 주축으로 발전한 것이 대승사상이다. 대승불교 실천행은 6바라밀이 대표 수행법이지만, 이를 넘어 이타(利他)의 구체적인 행으로는 서원(誓願)·행원(行願)·발원(發願)·회향(廻向) 사상 등이다. 이를 대승경전에서 살펴보자.

『열반경』에 “나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남을 먼저 제도한다.”라고 하고,<sup>38)</sup> 『화엄경』에도 “중생제도를 먼저하고, 나의 성불을 뒤로 미룬다.”<sup>39)</sup>고 하였다. 즉 ‘先度衆生後成佛(선도중생후성불)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초기 대승경전인 『유마경』에서는

“선미(禪味)에 탐착해 있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요,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의 진정한 해탈이다.”<sup>40)</sup>

라고 하였다. 『유마경』에서 보살의 진정한 해탈은 바로 자리적(自利的) 선(禪)의 탐착이 아니라 중생교화를 우선하는 것이 진정한 선자

38) 『大般涅槃經』 卷34 (T12, 838a), “自未得度先度他”

39) 80卷本 『華嚴經』 卷20 (T10, 108a), “是故要當 先令一切衆生 得無上菩提 無餘涅槃 然後成佛”

40) 『維摩詰所說經』 「文殊師利問疾品」 (T14, 545b), “貪着禪味 是菩薩縛 以方便生 是菩薩解”

(禪者)라고 정의한다. 보살 사상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유마경』에서 보면,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生死)에 들어간다. ... 만일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이 없어진다.”<sup>41)</sup>

라고 하였다. 곧 보살이 중생의 해탈을 위해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강경』 서두에 수보리 존자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云何降伏其心]’고 질문한다.<sup>42)</sup>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생명들을 제도해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바로 제도했다는 관념이 없어야 한다. 혹 관념이나 집착 등 상(相)이 있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3)</sup>라고 답변하셨다.

『금강경』을 비롯해 대승경전이 결집될 때, 시대적인 위기감이 있었다. 물론 대승경전 결집 때와 현 코로나 전염증이 만연된 시대의 위기는 다르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발기했을 때나 현 시대 승려·불자들의 목적지[중생을 위한 염원과 자비]는 같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시대, 승려와 불자들은 대승경전에서 설하는 ‘중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고경(古鏡)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승보살이 실천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41) 『維摩詰所說經』 「文殊師利問疾品」 (T14, 544b), “若一切衆生病滅則我病滅 所以者何 菩薩爲衆生故入生死 … 若衆生得離病者 則菩薩無得病”

42) 『金剛般若波羅蜜經』 (T8, 748c),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43) 『金剛般若波羅蜜經』 (T8, 749a)

『법화경』 제 10 「법사품」 에서 보살 행자로서의 길을 살펴보자.

“여래가 입멸한 후에,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진리가 담긴 『법화경』 을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할진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즉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중생에게 이 『법화경』 의 가르침을 설하는 일이다. 첫째, 여래의 방이란 선남자 선여인이 중생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大慈悲心]. 둘째, 여래의 옷이란 선남자 선여인이 부드럽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되 간혹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인욕으로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柔和忍辱心]. 셋째, 여래의 자리란 선남자 선여인이 공묘사상을 터득하고 그 공사상에 입각한 마음자리에 머물러 편안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최고 진리가 담긴 『법화경』 을 설하는 것이다[一切法空].”<sup>44)</sup>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갖고, 부드러운 인욕을 품으며, 진정한 공사상을 꿰뚫어 얻은 뒤에 無住心으로 실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승의 통섭·화쟁 사상으로 보살행자로서의 길을 드러내고 있다.

## VII. 결론

코로나19 전염증으로 인류는 긴 싸움을 하고 있다. 잠깐이나 임시라고 생각했던 전염증이 자리를 틀어앉아 떠나지 않고 있다. 이 전염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인데다 바이러스 변종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있는 현실이다. 불교계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불자와 출가 승려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계

---

44) 『法華經』 「法師品」 (T9, 31c)

다가 코로나 전염증이 감돌면서 불교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위기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스님들은 불자들이 사찰에 방문하지 않아도 불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로 우울해하는 불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신심을 키워주고 있다. 귀감이 되는 사찰로는 봉은사·비로나자국제선원·대관음사 등이다. BTN 방송국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영상으로 법회를 진행하거나 생중계 하고 있으며, 개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중시하고, 사찰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며, 시대 코드에 맞는 진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논자는 본문에서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포교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 신도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다른 불자들과 소통하며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함께 동참토록 한다. 즉 독경·염불·108배·명상·보시행·사찰 봉사 등 자신의 신행활동을 이야기하며, 다른 불자들이나 스님들에게 서로 공유하는 것을 통해 불자로서 연대감을 갖도록 해준다.

둘째, 사찰 운영의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몇 사찰도 교회처럼 멤버십 운영제도를 실시한다. 사찰 입장에서는 고정된 수입이 있어 포교에 전념할 수 있고, 불자들은 사찰이나 스님과 늘 연계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찰이 이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승려·불자들은 현 시대에 적합한 진리[說法]를 연구하고, 현대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명상법을 보급해야 한다.

넷째, 앞서서 신도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승려는

대승의 보살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인류는 거대한 파도에 휘청이고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 또한 코로나19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역증상연逆增上緣이라는 말이 있다. 즉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고통을 더욱 분발하는 인연[계기]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참고문헌>

T: 대정신수대장경

『金剛經』, T8

『法華經』, T9

『華嚴經』 80卷本, T10

『涅槃經』, T12

『無量壽經』, T12

『觀無量壽經』, T12

『大般涅槃經』, T12

『維摩詰所說經』, T14

『增一阿含經』 #19-1 「勸請品」 T2

南典 『相應部經典』 # 6.1 ‘勸請’

잡아함 39권, 1096 『繩索經』

금강대학교 불교사회연구소(2015), 『현대사회와 불교』, 서울: 씨아이알.

아리타 히데오·겐유소큐(2012), 이성동 역, 『禪과 腦』, 서울: 운주사.

定芸(2016), 「힐링을 위한 염불행법의 현대적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2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BTN 뉴스

불교신문

<https://www.naver.com> 지식백과사전

<https://www.youtube.com>

■ Abstract

## **Post-Corona: A Brief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Buddhism Propagation**

Sin, Myung-Hee(Ven. Jungun)

Corona took place from February 2020. The COVID-19 epidemic, regarding which it had been thought that it will disappear soon, did not end. And it is seen that it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period in the future. These days, how to prepare for after Corona on the part of not only the economy, the society, and the culture, but, also, the religious circle is a pivotal point. Even if this COVID-19 abates in the future, too, the possibility of yet another virus taking place is big. As the untact society has become long-term in the overall society, individually, the anxiety and the blue depression have been getting rampant, and the economy, also, has been continuing to get stagnant. As such, a Buddhist transformation point that will break through the heavy air of the COVID-19 epidemic must be sought after. Regarding the Buddhist circle at the present, the number of the believers has been getting reduced. And it is the reality in which the home leavers have, also, been reduced. At such a time point, because the Corona epidemic has occurred, the Buddhist temples have been receiving the economic blows. Among the Buddhist temples, the self-saving measures have been deliberated at the presentation places. And the Buddhist monks, too, have been preparing a new propagation medium for overcoming the present era. But,

a Buddhist practice method that fits the chord of the modern people and not a material replacement method must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Buddha must save the mankind. And, with a wish that is directed toward the mankind, which had been had by the great monks, the future of the propagation of the Buddhism must be pursued.

Keywords ● Post-Corona, COVID-19, Buddhism, Buddhist temple, virus, and propagation.

▮ 논문투고일 : 2020. 11. 6 ▮ 심사완료일 : 2020. 12. 6 ▮ 게재확정일 : 2020. 12. 10